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

KBS사보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Vol. 741

무더위를 날려버릴 새 예능 프로그램이 찾아옵니다

어느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중순,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여름밤을 책임질 새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리얼 버라이어티부터 출장 상담 프로그램까지 KBS가 야심차게 준비한 세 편의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러브 어게인 예능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이하 이별 리콜)는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해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인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리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헤어졌던 커플이 이별 후 처음으로 '리콜 식탁'에서 대면하고, 둘만의 공간에서 식사와 대화를 통해 '리콜' 가능 여부를 탐색한 뒤 '리콜' 여부를 결정해가는 과정들이 흥미롭게 펼쳐질 예정.

〈이별 리콜〉로 4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 MC로 복귀하는 가수 성유리는 "이별한 연인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한다"며 "이별 이전의 만남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체 불가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개그맨 양세형과 방송인 장영란이 성유리와 호흡을 맞춰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

그룹 하이라이트의 손동운과 래퍼 그리, 그룹 아이즈원 출신의 최예나는 패널로 나서 사랑과 이별을 바라보는 MZ세대의 시각을 선보이며 재미를 더한다.

제작진은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리콜남'과 '리콜녀'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과 이별, 재회를 보여주겠다"며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 첫 방송 7월 11일 /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KBS2





인생 힐링 로드쇼 〈오케이? 오케이!〉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오은영 박사와 개그맨 양세형이 달려간다! 〈오케이? 오케이!〉(이하 오케이)는 고민 가득한 사연 신청자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대국민 출장 상담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고민 상담 프로그램들이 주로 스튜디오에서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주는 형식이었다면, 〈오케이〉는 사회 취약 계층부터 소외된 지역의 시청자까지 MC와 게스트들이 직접 찾아가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생생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7월 12일 첫 방송에서는 서울의 광장시장을 찾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 단순한 재미만을 추구하는 예능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공익적 프로그램으로서 〈오케이〉가 앞으로 어떤 감동을 전해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첫 방송 7월 12일 / 매주 화요일 밤 11시 KBS2

[2면에 계속 ▶]

[1면에 이어서]

운명 극복 수련기 〈홍김동전〉



〈주접이 풍년〉 후속인 〈홍김동전〉은 안락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동전에 운명을 맡기고 그 결과로 알 수 없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좌충우돌 예측불허 리얼 버라이어티다.

구독자 123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홍진경과 2020년 KBS 연예대상 수상자 김숙이 〈언니들의 슬램덩크〉 이후 5년 만에 다시 뭉쳤다. 여기에 모델 겸 예능인으로 2049 시청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주우재와 어느덧 대세 MC의 반열에 오른 개그맨 조세호 그리고 숨겨진 예능 원석인 2PM의 우영이 출연해 동전이 허락하는 좌충우돌 인생 속으로 함께 빠져들 예정.

이들은 매주 초대되는 게스트와 함께 동전을 던지고 그에 따라 주어진 힘든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동전 던지기의 결과는 제작진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매회 프로그램의 끝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꿀잼 포인트다.

▶ 첫 방송 7월 14일 /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KBS2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2021년 7월 1일 방송된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는 헌 옷이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지구에 남는 의류 폐기물 문제를 파고들어, 쉽게 사서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세밀한 취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출을 담당한 김가람 PD는 "환경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프로그램이 사랑받을 수 있었다"며 "환경과 불평등 문제를 알리기 위해 헌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는 창의혁신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14주년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번 시상식은 6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2021 안녕 우리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2021 안녕 우리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수상했다.

〈2021 안녕 우리말〉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신조어와 무분별한 외래어, 줄임말과 잘못된 높임말 등을 쉽고 고운 우리말로 바로 잡아주는 흥미로운 기획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언어사용 및 공공언어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6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됐다.



정덕현의 TV 읽기

‘자본의 시스템에 갇힌 청춘들에게’… 〈징크스의 연인〉


정덕현
문화평론가

거대한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는 왕자의 이야기.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라푼젤〉을 현대로 가져온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KBS 수목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은 손에 닿는 사람의 미래를 보는 능력 때문에 ‘비밀의 방’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판 라푼젤’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이슬비(서현 분)가 바로 그 주인공. 어머니 미수(윤지혜 분)는 물론이고 그 윗대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능력이 이들에게는 저주가 되었다. 금화그룹 회장 선삼중(전광렬 분) 같은 사람들이 이들의 능력을 자신들의 부를 쌓는 데만 이용하기 위해 평생 그들을 가둬두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부를 쌓은 선삼중은 자신의 아들이 ‘슬비의 주인’이 되게 해 이 부를 대물림하려 한다. 이들에게 미수나 이슬비는 사람이 아니라 천운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물건’ 같은 존재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슬비를 만나게 된 공수광(나인우 분)은 그로 인해 저주에 걸린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삼중이 사고로 위장해 공수광의 어머니를 죽게 하고 공수광마저 죽이려 한다. 어느 어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공수광은 그 어부의 죽은 아들 이름, 고명성으로 시장통에서 생선가게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그는 저주받은 ‘불운’의 상징이 됐다. 〈징크스의 연인〉이라는 제목은 그래서 능력 때문에 갇혀 지내는 저주에 걸린 이슬비와 그와 만난 후 끝없는 불운을 겪은 공수광이 가진 상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지독한 징크스 혹은 저주에 빠져 있다.

하지만 호텔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방’에 갇혀 있던 이슬비가 어머니 미수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고, 공수광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서 이들의 운명은 조금씩 바뀌어간다. ‘불운의 아이콘’이던 공수광을 ‘행운의 아이콘’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이슬비는 실제로 그렇게 공수광을 만들어간다. 스마일 수산을 운영하는 스마일댁(황석정 분)이 경쟁심에 공수광의 행운 생선가게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생긴 갈등을 이슬비가 풀어내는 과정이 그렇다. 이슬비는 자신의 능력으로 스마일댁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스마일댁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칫 사기로 갈 수 있는 문제를 막아준다. 결국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는 ‘불운’의 요소를 화해로써 ‘행운’으로 바꿔놓는 이슬비의 노력으로 공수광은 점점 시장통에서 신뢰를 얻게 된다.

이처럼 이슬비의 미래를 보는 능력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가져온다. 즉 대를 이어 자신만 부유해지려는 욕망에 눈이 먼 선삼중 같은 인물이 활용하면 누군가의 죽음까지 불러일으키는 저주가 되지만, 자칫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기도 하는 분란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데 활용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도식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떤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른 전혀 다른 결과를 통해 〈징크스의 연인〉은 자본화된 세상의 폭력적인 욕망을 에둘러 꼬집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의해 저주와 불운을 겪는 두 청춘이 서로 만나 그것을 사랑과 행운으로 바꿔나가는 ‘현대판 동화’를 그려낸다.

흥미로운 건 이 현대판 동화에 우리네 청춘들의 현실이 아른거린다는 점이다. 성장의 사다리가 끊겨 미래가 태생으로 결정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청춘의 자화상이 그것이다. 드라마는 이들에게 시스템 바깥으로 나와 그곳에서 서로와 이웃의 행운이 되어주는 대안적인 행복을 찾으라 말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어쩌면 이슬비처럼 자본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밀의 방’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걸 타고난 운명으로 치부하며.

알기 쉬운 미디어 이슈

OTT 이용행태로 본 디지털 삶의 확장

OTT(Over The Top)란 넷플릭스나 웨이브처럼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을 보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트렌드를 분석하면 2019년부터 사용이 급증했고, 이제는 보편적인 단어가 된 듯하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2020년부터 3년째 수행한 “OTT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행태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이용행태가 갖는 함의에 대해 정리해 봤다.

2022 OTT 이용행태 조사

OTT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운영하는 약 24만 명의 KBS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15세 이상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해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고, 최종 1,066명이 응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 조사대상은 다양한 OTT 중에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 애플TV+ 6개 서비스로 한정했다. OTT 이용자는 2020년 45.5%에서 2021년 54.2%, 2022년 5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IPTV나 케이블TV를 보다가 끊은 코드 커터는 7.8%나 되었다. OTT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는 구독형(SVOD)보다 광고형(AVOD, FAST)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월정액 부담’(39.0%) 이유로 중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OTT 서비스는 평균 4.1개인데 넷플릭스가 80.2%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유튜브(무료) 64.7%, 티빙 37.3%, 웨이브 32.4% 순으로 나타났다. OTT 이용자의 연령별 TV 시청 방법을 보면, 중장년층은 IPTV나 케이블TV로 보고 젊은층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OTT를 통한 디지털 삶의 확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현한 OTT 서비스는 영상 콘텐츠 이용을 통해 시청자의 디지털 삶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첫째, OTT를 통해 콘텐츠 이용 방법이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실시간 방송 외에는 비디오테이프나 DVD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통해 TV를 포함한 콘텐츠를 보고 있다. 둘째, SNS와 게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넘쳐나지만 여전히 영상 콘텐츠도 소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이용 시간이 3시간 4분이었는데 2021년에는 3시간 5분으로 1분 증가하였다. 이를 보면 방송은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실시간으로 해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불법 웹하드나 국내 케이블을 통해 해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에 동시 유통이 되므로 지역의 한계가 사라지고 있다. 넷째, 콘텐츠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이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디바이스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다섯째, 콘텐츠 소비가 메타버스 세상과 결합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현재 〈기묘한 이야기〉 등 23개의 모바일 게임을 넷플릭스 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에는 OTT가 하나의 디지털 세계가 될 수도 있다.

KBS의 대응 방향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OTT로 이동하는 현상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가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 전략을 채택하고 OTT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상파는 2012년부터 푹(POOQ)을 론칭했고, 2019부터는 명칭을 웨이브(wavve)로 바꾸어 미래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웨이브의 만족도는 넷플릭스(69.6%), 티빙(62.1%)에 이어 3위(55.7%)이다.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닐슨코리안클릭(http://www.koreanclick.com)의 조사에서 티빙의 월 순이용자 수는 5월에 430만 명을 기록하며 웨이브의 384만 명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향후 KBS를 포함한 지상파는 OTT 대응을 위해 첫째, 서비스에 대한 이용 환경(UI, UX)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의 왓챠가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점을 반면교사 삼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에서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웨이브에서도 티빙의 〈술꾼도시 여자들〉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웨이브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셋째,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면서 첫 번째 윈도로 지상파와 웨이브 가운데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할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KBS는 OTT를 통한 디지털 삶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편성국을 멀티플랫폼편성국으로 개편한 바 있어, 향후 더 체계적인 콘텐츠 기획전략을 수립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KBS만의 제작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한 〈누리호 발사 중계방송〉



Q 누리호 2차 발사 중계는 국민적인 관심사였습니다. KBS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나요?

작년에 이어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중계에도 KBS, MBC, SBS, YTN 4사가 공동제작에 참여했고, 국내 10개 방송사가 이 신호를 받아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KBS는 발사 중계의 핵심인 발사 장면 제작을 담당해, 실질적으로 발사 중계방송의 대부분이 KBS 영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흥 외나로도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발사 전체 상황을 총괄하는 발사통제동이 있고 여기에서 2km 떨어진 곳에 실제 발사가 이루어지는 발사대가 있습니다. 이번 2차 발사에는 발사대에 초고속 카메라를 비롯한 8대의 카메라, 발사통제동에 6대 등 총 14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발사 순간에는 발사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해 이 모든 카메라를 원격조정해야 했습니다. 발사대는 사전 준비과정에서도 인원 출입과 출입시간이 매우 엄격해 그 어느 장소보다 열악한 방송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KBS만의 중계기술 역량이 결집된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중계에서 KBS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활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누리호를 인지하고 자동으로 추적하는 '로켓인식 카메라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 설치·운용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각도와 속도 제어가 가능한 하드웨어장치를 먼저 제작했습니다. 각도 제어를 위해서는 요즘 RC카에 흔히 사용중인 모터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이미지 트레킹을 위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발사 전 2주간 매일 딥러닝을 시켰습니다. 딥러닝 대상으로는 인터넷상의 누리호 1차 동영상을 활용했고, 로켓을 인식시키는 다양한 방법들(Motion detecting, Edge detecting, 불꽃이미지 detecting 등)을 통해 Data를 추출해 카메라가 로켓이라고 90% 인식할 때까지 딥러닝을 시켰습니다. 매일매일의 딥러닝으로 인식률이 좋아져 발사 당일 누리호 로켓을 원활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카메라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KBS 중계기술국이 개발한 이 '로켓인식 카메라시스템'도 하드웨어와 이미지 트레킹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사람이 가기 어렵지만 특정 사물의 무인 추적이 필요한 장소에서의 카메라 촬영에 충분히 응용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KBS는 항상 타사와 차별화된 방송 영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목말라 있고 앞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헬기 카메라, 드론, 이동차, 와이어캠, RC카 등 다양한 리소스를 보유중이고, 이번에 '로켓인식 카메라시스템'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향후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리소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 중계 제작에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로켓인식 카메라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시행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무 몰입도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KBS 임직원(이사/집행기관/직원/관현악단/국악관현악단/연봉직/특정업무직/방송지원직/전속성우)이며, 한국EAP협회에 사전 예약을 통해 사외와 사내상담을 최대 5회를 원칙으로 받을 수 있다.

'사외상담'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저녁 9시까지, 일요일은 상담사와 협의해 본사·지역방송국 소재지별 연계 상담센터(한국EAP협회)에서, '사내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까지 본사 본관 1층 의무실 옆에 마련된 심리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상담신청은 전화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카카오톡과 QR코드,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일과 삶의 불균형 해소 및 직무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2022년 2분기 정년 퇴임식 열려



2022년도 2분기 정년 퇴임식이 6월 30일 본사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중단됐던 정년 퇴임식이 재개된 것은 2년 6개월 만이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의철 사장과 김덕재 부사장, 박찬욱 감사 등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의철 사장은 "30여 년 동안 KBS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선배들의 뜻을 이어 후배들과 함께 더 좋은 콘텐츠와 저널리즘으로 시청자들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KBS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예능 프로그램 〈오늘부터 무해하게〉 영화화



2021년 10월 2TV에서 방송됐던 환경 예능 프로그램 〈오늘부터 무해하게〉가 극장판 영화 〈보통의 용기〉로 제작돼 6월 30일부터 CGV 등 전국의 개봉관에서 상영되고 있다.

〈보통의 용기〉는 〈오늘부터 무해하게〉의 연출을 맡았던 구민정 PD가 메가폰을 잡았으며, TV 프로그램 그대로 배우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 세 사람이 충남 홍성에 위치한 섬 죽도에서 일주일간 보낸 탄소 제로 프로젝트 과정을 담백하게 담아냈다.

〈오늘부터 무해하게〉가 친환경 예능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KBS만의 따뜻한 감성과 청정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만큼 〈보통의 용기〉도 관객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 〈제31기 시청자위원〉 공개 모집



KBS가 시청자를 대표해 활동할 '제31기 시청자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해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 KBS의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제31기 시청자위원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응모자격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KBS는 이번부터 시청자위원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만 18세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게 했다. 응모 방법은 KBS 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http://office.kbs.co.kr/audience)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7월 2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계열사 소식

KBS Joy, 연애 리얼리티 〈비밀남녀〉 방송



KBS Joy가 7월 26일 새로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비밀남녀〉를 선보인다.

'사랑은 항상 진실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상처를 숨긴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결정하는데 진실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와 같은 궁금증을 '거짓말'이라는 장치를 통해 확인해 볼 예정. 이를 위해 일반인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주일간 함께하며 은밀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개그우먼 장도연, 가수 민경훈, 폴킴, 지연(티아라) 등이 진행을 맡아 사랑에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이들의 아프지만 가슴 뛰는 연애 과정을 실감나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하얀 거짓말로 시작해 진실한 사랑을 찾는 〈비밀남녀〉는 상대방의 조건, 과거가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조건 없는 진짜 사랑에 빠질 '비밀남녀'의 모습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첫 방송 7월 26일 / 매주 화요일 밤 9시 40분 KBS joy KBS drama

KBS 미디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릴레이 토크콘서트' 개최



KBS 미디어가 8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KBS미디어가 주관하는 이번 릴레이 토크콘서트는 다양한 분야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와 유명 인사가 패널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담은 강연을 진행하고, 학생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8월 19일 춘천을 시작으로, 천안, 부산, 순천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해당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 혹은 이메일(withmu@kbsmedia.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크콘서트는 유튜브 채널(https://url.kr/ijsn89)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KBS 대구방송총국

지역 시청자위원이 말한다

대구의 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공영방송, 대구 KBS의 활약을 기대하며

간혹 미래에 큐레이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강의에 참여하곤 한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직종 중에 큐레이터와 가장 유사한 직종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던 사람들중에서 "방송국 PD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날의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방송국의 프로듀서는 다루는 매체는 달라도 하는 일의 성격은 상당히 유사하다. 큐레이터는 전시회의,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의 개념을 설정한 뒤 그 개념의 실현을 위한 자료조사에 착수하고, 자료조사 중에 정보화할 수 있는 것들을 아카이빙 하고, 전시회 혹은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진들과 협업해 결과물을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남짓 대구 KBS의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더욱 명확히 확인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슈들,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구 KBS의 운영진과 제작진의 노력이 대구미술관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구를 급습했을 때, 대구미술관은 상당 기간 휴관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어 코로나19 이슈를 다루는 전시를 준비했다. 〈새로운 연대〉라 명명한 전시였는데, 미술관이 착안했던 점은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해 예민한 촉수를 지닌 예술가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예술가들은 확진자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생활센터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고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한 작가들은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예술적 발언을 위한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물이 대구미술관의 재개관과 더불어 〈새로운 연대〉라는 전시에 소개됨으로써 전국적인 조명을 받았는데, 이때 대구 KBS의 협력은 상당히 지대했다. 〈새로운 연대〉 전시를 뉴스에서 다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과의 인터뷰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함으로써 현대의 예술가들이 무슨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시청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었다.


최은주
대구방송총국 시청자위원 / 대구미술관장

공영방송의 역할이란 이런 것이다. 방송이라는 송출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무엇인가에 다가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이란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일과는 무관한 것,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것,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공상이나 상상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새로운 연대〉라는 전시회를 통해 미술관과 대구 KBS는 어느 사이에 손에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연대 의식을 보여줄 수 있었다.

미술관의 전시장이 미술 작업의 결과물에 집중한다면 방송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 이면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대구의 예술가들을 좀 더 적극적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제작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지역의 작가를 한국의 대표적 작가로, 나아가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공영방송 대구 KB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KBS 춘천방송총국

'지명'으로 풀어본 삶과 역사 이야기 지명수배





2019년 8월 첫 방송을 시작한 〈지명수배〉는 강원도의 지명이 담고 있는 의미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거기에 담긴 지역민의 삶을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 동안 지명의 유래와 전설을 기억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을 수집한 역사학자들을 찾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소한 삶을 흥미롭게 풀어내왔다. 지명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에는 '서편제', '직장의 신', '7번방의 선물'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로 익숙한 배우 김기천 씨가 안내자로 나선다.

최근 방송됐던 〈구절양장을 아시나요? 정선 구절리〉, 〈검은 대나무 마을 강릉 죽헌동〉, 〈아흔아홉 굽이의 삶 평창 횡계〉 편 등은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익숙한 지명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펼쳐 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제작진은 오는 7월 27일 방송에서는 '이제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다'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인제군 원통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 어느 편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담았다며 본방사수를 당부했다.

오래된 지명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발굴해 지역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지명수배〉는 앞으로도 강원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 (강원권) KBS1



노은지 기상캐스터의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이제부터는 '폭염주의보'

올여름은 일찍부터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선 사상 첫 '6월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26일 밤새 25℃를 웃돌며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6월에 열대야가 관측된 건,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른 밤 더위만큼 이번 여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주 정도가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이달 16일 '초복'을 시작으로 '삼복더위'가 시작되겠고요. 이달 27일은 '대서(大暑)' 절기이기도 합니다. '삼복 기간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더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불더위'와 '물더위'인데요. '불더위'는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은 '불볕더위', '땡볕더위'입니다. 불볕더위일 때는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만 피하면 그리 덥지 않아 그늘에 있으면 서늘한 기운이 들고요. 해가 진 뒤엔 서늘해집니다. '물더위'는 습도까지 높은 '무더위'입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과 습도가 함께 높아져 몸이 끈적거리고요. 해가 진 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똑같이 30℃까지 올라도 습도가 높은 날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날씨 예보에서도 '불볕더위'와 '무더위'를 구분해서 사용하고요. 기상청에서도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해 '여름철 체감온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농촌, 비닐하우스 등 더위에 취약한 곳에서의 체감 더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나눠 발표하는데요. 기상청 날씨 누리(www.wea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온도와 습도가 함께 높아지는 본격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이 33℃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도 많겠습니다. 이럴 땐, 더위를 피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위험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야외에서 작업해야 한다면 물을 수시로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고, 햇볕을 가려줄 챙이 넓은 모자, 통풍을 위해 통이 넓은 옷을 입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리한 논밭 일은 피하고, 가급적 해가 떨어진 뒤에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인데요. 홀로 계신 이웃이나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시고요. 당분간은 무리한 야외 작업은 하지 말고 시원하게 계시라는 당부도 잊지 마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더위가 찾아왔지만, 이번 여름도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여름의 맛 '진이식당'



노중훈 여행작가

햇수로 24년째 진이식당을 운영중인 주인 어머니는 1960년생으로 함안과 이웃한 창녕이 고향이다.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남편 고향인 함안으로 귀향, 20여 년간 논밭일과 소 키우는 일에 매진했다. "시골에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식당을 열게 됐죠." 지금도 식당일과 논밭일을 병행한다. 반찬 대부분을 텃밭에서 키운 작물들을 이용해 만든다. "원래 음식 솜씨는 없어요. 세월이 만들어준 거죠"라고 겸양을 보였지만 간이 세지 않고 기름도 과하게 사용하지 않은 찬들이 하나같이 깔끔해서 입에 아주 잘 붙었다.

인상적인 요리는 난생처음 접한 고구마잎볶음. 고구마 줄기 손질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인아주머니께 혹시나 해서 "고구마 잎은 안 먹죠?"라고 물었는데 "연한 고구마 잎은 액젓과 초피를 넣고 무쳐 먹기도 해요"라는 설명을 들은 터였다. 겨우 막걸리 반 되를 시켰을 뿐인데 고구마잎볶음과 고구마줄기볶음 이외에도 호박볶음, 가지무침, 부추무침, 깻잎장아찌, 오이무침, 배추김치 등이 줄줄이 상에 올랐다. 완연한 여름 밥상이자 온전한 여름의 맛이었다. 막걸리만 간단하게 마시고 일어설 계획이었는데 공깃밥을 청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손수 빚은 막걸리는 청포도 100알을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는 느낌이 들 만큼 새콤새콤했다. "도수가 높지는 않아요. 일반 막걸리와 비슷해요. 봄과 가을에 가장 맛있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시큼해요."

진이식당 어머니는 시할머니와의 사이가 각별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결혼 무렵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남편은 시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나라로부터 '장수 지팡이'인 청려장을 두 개나 받을 만큼 시할머니는 천수(108세)를 누렸다. 세상을 등질 때까지 치매 없이 정정하셨다고 한다. 그런 시할머니를 극진히 모신 손부(孫婦)에게 효부상이 내려진 것은 당연했다. 막걸리도 시할머니와 오촌 당숙을 비롯한 시가 어르신들께 배웠다. 과분한 8첩 반상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더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난데없이 민어찜을 내온 것이다. 어안이 벙벙했는데 서울에서 왔다고, 원래 너무 더워서 오늘은 장사 접으려고 했는데 이왕 들어오라 했고, 그 덕에 동네 아저씨들 시켜 고구마 줄기 벗기게 했으니 민어찜을 내준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꼬리 쪽, 나중에는 머리 부분까지 가져다주셨다. 계걸스레 비우고 일어서서 계산을 부탁하니 세상에, 이 모든 걸 단돈 6천 원만 받겠다는 것이다. 막걸리 반 되와 공깃밥 값만 내라는 이야기다. 겨우겨우 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쥐여드리고 도망치듯 식당을 나왔다.

이튿날 오전 진이식당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요청했다. 반찬은 어제와 비교해보니 깻잎장아찌와 오이무침이 퇴장하고 달걀프라이와 열무김치가 새롭게 등장했다. 열무김치는 앙칼지지 않고 순한 맛이었다. 자작하고 진한 된장찌개, 여기에 양푼에 담아 내준 고봉밥. 이건 비벼 먹으라는 명확한 시그널이었다. 그릇을 부시듯 반찬을 다 넣고 비비자 어머니가 어느새 다가와 "참기름 여줄까요(넣어줄까요)?"라고 묻는다. 다시 한번 마주한 진짜배기 여름 밥상, 진짜배기 여름의 맛이었다.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장터길 23
·전화번호: 055-582-7663
·메뉴: 된장찌개, 김치찌개, 명태전



본격 프로듀싱 배틀 리슨 업

7월 30일 첫 방송 예정인 〈Listen-Up(이하 리슨 업)〉은 대한민국 톱 프로듀서들이 펼치는 음원 차트 점령 프로듀싱 배틀 프로그램이다.

총 6라운드 10회로 구성되는데 국내외 프로듀서 10팀이 매회 주어지는 미션을 통해 새로운 음원을 프로듀싱하고, 1분 기대 점수(사전에 공개된 유튜브 '미리듣기 조회' 수와 '좋아요' 수 합산)와 가수의 무대 공연 뒤 현장 투표 점수, 음원 차트 스트리밍 점수 등을 종합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가수 다이나믹 듀오가 MC로 나서고, 프로듀서들이 매 라운드마다 새로 만든 노래들을 에일리, 신용재, 남우현, 경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원 강자들이 부르며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듀서 10팀의 라인업도 화려하다.

이효리, 아이유, 아이브 등의 히트곡을 만들어 낸 라이언전을 필두로 휘인, 김나영 등 인기 뮤지션들의 수많은 러브콜을 받은 음원 강자 정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대세 프로듀서 김승수가 출격한다.

대한민국에 힙합 신드롬을 일으킨 아티스트들도 프로듀싱 배틀에 참가하는데, 한국 힙합의 황금기를 이끈 팔로알토와 MZ세대의 새로운 심볼 BIG Naughty(서동현), 트렌디한 음악으로 소셜 플랫폼을 강타하며 새로운 역주행의 아이콘이 된 'OHAYO MY NIGHT'의 프로듀서 파테코가 그 주인공이다. 싱어송라이터들도 대거 프로듀서로 나선다. 노래, 춤, 프로듀싱까지 다 되는 완성형 아이돌 AB6IX의 이대휘 그리고 이석훈과 백지영, 둘째 이모 김다비(김신영)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도코, 작곡가이자 DJ로 활약 중인 LAS(아빈, 슬레이), 만능 아티스트 픽보이가 함께한다.

〈리슨 업〉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프로듀서들의 음악 작업 모습뿐만 아니라, 히트곡 제조를 위해 섭외한 명품 가수들과의 프로듀싱 과정을 담은 일상도 리얼하게 공개할 예정. 이밖에도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역대급 규모의 무대 또한 선보일 예정이어서 무더운 올 여름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쾌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첫 방송 7월 30일 / 매주 토요일 밤 10시 35분 KBS2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김의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2821 / kbssabo@kbs.co.kr
편집인 최영철 **취재** 안현기 기현정 최재영 김희경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